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HDPN) 국제 포럼

소개

2016 년에 열린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인도적 지원-개발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 Nexus)로 인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구분을 뛰어넘어 공동 성과(collective outcome)를 이루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계에 관한 국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국제 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 연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구축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HDPN 혹 이하 “넥서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인도적 지원 기관의 넥서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인도적 지원 기관들이 넥서스를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넥서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현장에서의 실행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11 월 26 일,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공여기관을 포함한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접근법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지원 기관들에게 갖는 시사점 및 향후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연계 접근법을 적용한 사업들과 그 성과, 한계점이 국내 인도적 지원 기관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포럼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 분야 간의 더 긴밀한 연계활동을 도모하고, 국제적 담론과 기준에 부합하는 넥서스의 전략적 실행을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 년 11 월 26 일, 화요일, 9:30-17:00
- **장** 소: 페럼타워 페럼 홀 (서울 중구 을지로 5 길 19)
- **대** 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NGO, 공여기관, 학계의 전문가 및 실무자 150 여명

▪ **프로그램(안):**

시간	세션	연사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	송웅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10:10~10:20	환영사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
10:20~10:30	축사	Alan DWYRE, 미국 국제개발처 산하 해외재난지원국 (USAID OFDA) 수석 지역 고문
10:30~12:00	<p>세션 1: 넥서스의 등장과 유엔 개혁</p> <p>이 세션에서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넥서스의 상황적, 규범적 토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p> <p>넥서스 등장에 바탕이 된 주요 발전들(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공동 성과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새로운 업무 방식 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기관들의 넥서스 참여 전략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p> <p><u>주요 주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서스 등장의 배경: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 넥서스 주요 개념: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 of Working), 공동 성과 - 넥서스 적용의 전략적 중요성과 조직차원의 접근 - 인도적 지원-개발/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 - 유엔 개혁과 비유엔 기관에 미치는 영향 	<p><u>좌장:</u></p> <p>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p> <p><u>토론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y H. MARTIN,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아태지역 본부장 • Stephan KLINGEBIEL,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 정책 센터 소장 • Louis HOFFMANN, 국제이주기구(IOM) 인도네시아 대표부 소장
12:00~13:15	점심식사	

13:15~14:45	<p>세션 2: 공여기관이 바라본 '인도적지원-개발-평화'</p> <p>다양한 공여기관들의 발표로 이루어진 이 세션은 공여기관의 넥서스에 대한 시각과 예산 운용/자금조달 방법, 정책도구, 우선순위 선정, 그리고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세션을 통해 국내외 공여기관들의 넥서스 관련 전략과 체계를 이해하고 파트너십 증진을 모색합니다.</p> <p><u>주요 주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서스에 대한 공여기관의 접근 - 넥서스를 고려한 공여기관의 사업 지원 및 전략, 실행 우선순위 	<p><u>좌장:</u></p> <p>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p> <p><u>토론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a PIYAKA, 미국 국제개발처 산하 해외재난지원국(USAID OFDA) 아태지역사무소 수석 인도적지원 고문 • Hugh MACLEMAN,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협력국 정책고문 • 김지윤 한국국제협력(KOICA) 다자협력실 실장 • Lydia POOLE, 파트너, 휴마니타리안 아웃컴스(Humanitarian Outcomes)
14:45~15:00	휴식	
15:00~16:45	<p>세션 3: 넥서스의 적용- 프로그램 실제 사례와 접근방법</p> <p>이 세션에서는 넥서스의 '실행(operationalization)'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션은 단기 긴급 구호와 장기 개발 사업의 연계를 이룬 모범사례를 알아봅니다. 다양한 사업의 경험을 통해 넥서스를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p> <p><u>주요 주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긴급 구호와 장기 개발 계획 연계 프로그램 사례 - 현장에서 본 넥서스 프로그램 기회와 한계점 	<p><u>좌장:</u></p> <p>Andrew LIND,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긴급사태 및 사후위기 선임 담당관</p> <p><u>토론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ka GOYOL, 유엔아동기금 (UNICEF) WASH 부문장 • Marco CHIMENTON, 국제이주기구(IOM) 필리핀 코타바토지역 사무소장 • Charles R. SABGA, 국제적십자 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소장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UN Migra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thew SCOTT, 월드비전 인터네셔널 위기 상황(Fragile Contexts) 이니셔티브 리더• 송지홍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인도지원팀 팀장
16:45~17:00	폐회사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